

이야기 구조에 따른 만 2, 3세 유아의 이야기 이해*

Story Comprehension of 2- and 3-year-olds According to Story Structure*

김효영(Hyo Young Kim)¹⁾

이순형(Soon Hyung Yi)²⁾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2- and 3-year-olds' story comprehension by story structure. Sixty-eight children from day-care center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were tested story comprehension about causal, noncausal, discontinuous story presented by pictures. Story comprehension included literal, inferential, & empathic comprehension. Data were analysed by ANOVA(repeated measure) and t-test. The result showed that 3-year-olds scored higher in literal and inferential comprehension than 2-year-olds.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literal, inferential, & empathic) scores were higher in causal structure than discontinuous and noncausal structure.

Key Words : 문자적 이해(literal comprehension), 추론적 이해(inferential comprehension), 공감적 이해(empathic comprehension), 이야기 구조(story structure).

I. 서 론

이야기 이해란 이야기 정보에 대한 응집된 표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의 뜻을 해석하고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획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야기 이해는 이야기의 정보나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의미를 통합하여 추론하는 복잡한 인지적 과정이며(Suh & Trabasso, 1993), 기존의 지

식 체계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의미로 만들어 가는 구성적이고 해석적인 과정이다(Bonitatibus & Beal, 1996; Lipson & Cooper, 2002). 따라서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나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와 같은 일반 지식을 활용한 추론능력이 필수적이다(조혜자, 1988; Trabasso, Secco, & van den Broek, 1984; Wenner, 1999).

이야기 이해를 평가한 연구들(최윤경·유안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았다.

¹⁾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o Young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E-mail : agwater1@snu.ac.kr

진, 1995; Beagles-Roos & Gat, 1983; Davey & McBride, 1986; Hansen & Pearson, 1983; Morrow, 1984; 1985; 1990)은 이야기 이해를 문자적, 추론적, 비평적 또는 공감적 이해로 분류하였다. 문자적 이해(literal comprehension)란 이야기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이나 정보, 인과관계를 기억하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Morrow, 1984). 즉 단어나 문장의 일차적 의미를 해석하고 이야기에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초보적 수준의 이해 과정이다.

추론적 이해(inferential comprehension)란 이야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등장인물의 감정과 행동 및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이야기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Morrow, 1984). 이는 두 문장 이상의 정보를 통합하고 기존의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고차적 이해 과정이다.

비평적 이해(critical comprehension)란 이야기에 제시된 정보와 이전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야기 내용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적 이해(empathic comprehension)란 자아와 객체의 상호관계와 이를 둘러싼 제 3의 대상간의 관계를 분명히 구분하여 그 감정을 공유하고 조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최윤경·유안진, 1995). 문학적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평가나 해석뿐만 아니라 정서를 활용한 공감적 이해가 필수적이다(Miall, 1989). 따라서 문학적 이야기 도구를 사용한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이해를 문자적, 추론적, 공감적 이해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 이해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유은혜, 2000; Hansen, 1981; Lee, 1983; Nezworski, Stein, & Trabasso, 1982; van den Broek, Lorch, & Thurlow, 1996)은 이야기 내용

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이야기 이해의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살펴 보거나 이야기 이해의 영역을 세분하여 분석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문학적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공감적 이해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Miall, 1989). 따라서 유아의 이야기 이해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이해의 문자적, 추론적, 공감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해야(Morrow, 1984)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인지심리학자들(Bauer & Mandler, 1989; Bauer & Shore, 1987; Hudson & Nelson, 1983)은 유아가 사건이나 이야기에 대한 인지적 도식을 형성하는 시기에 관심을 보였다. 초기 인지적 도식의 한 형태인 스크립트 지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만 1세 정도의 영아도 친숙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순서를 기억할 수 있고(Bauer & Mandler, 1989; Bauer & Shore, 1987), 사건의 시간적, 인과적 순서를 고려하여 회상 할 수 있다(Bauer & Mandler, 1989; Hudson & Nelson, 1983). 또한 만 2, 3세 유아는 인과적으로 일관된 이야기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인과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스크립트적 사건이나 자기 행동과 생각에 대한 서술을 할 때는 인과성을 보이기도 한다(Kemper & Edwards, 198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 만 2, 3세 유아도 충분히 이야기의 내용과 순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야기 이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언어적 표현이 자유로운 만 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나이 어린 유아의 이야기 이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나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 이해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평가 방법상의 한계 때문이

다. 영아나 나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Bauer & Shore, 1987; Bauer & Mandler, 1989; Fivush & Hamond, 1989; Hudson & Nelson, 1983)은 주로 일상 경험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야기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고, 그림이나 행동 재연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지식과 회상을 평가하였다. 한편 만 5세 이상의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야기 내용을 자유롭게 회상하거나 회상을 유도하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언어적 평가 방법은 언어 표현이 미숙한 나이 어린 유아의 인지 능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Brown, 1975; Fivush & Mandler, 1985; Fivush, Haden, & Adam, 1995; Fivush, Kuebli, & Clubb, 1992; Price & Goodman, 1990; Smith, Anderson, & Fischer, 1985). 따라서 언어 표현이 덜 자유로운 만 2, 3세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 도구를 사용하여 이야기 이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이야기 회상과 이해는 이야기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Goldman & Varnhagen, 1986; Johnson & Mandler, 1980; Mandler & Johnson, 1977; Nezworski 등, 1982; Stein & Glenn, 1979; Stevens & Yussen, 1988; Thorndyke, 1977; Wenner, 1999). 즉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표를 중심으로 응집되어 있을 때, 이야기에 대한 회상 및 이해 수준이 높다. 구체적으로 이야기의 구조가 인과적일 때는 4세 유아도 이야기를 정확한 순서로 기억할 수 있으며(Stein & Trabasso, 1982),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등장인물의 목표에 근거한 설명이 가능하였다(Wenner, 1999). 이러한 결과들은 나이 어린 유아도 인과적이고, 잘 구조화된 이야기를 보다 잘 이해하며, 이야기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야기 구조에 따른 이야기 이해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이야기 내용의 회상에 중점을 두었을 뿐, 이야기 구조가 이야기 이해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범주의 연결 관계와 인과적 응집성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인과구조, 비인과구조, 비연결구조로 나누고, 유아의 문자적, 추론적, 공감적 이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언어 표현능력이 부족한 만 2,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이해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봄으로써, 나이 어린 유아의 이야기 회상과 추론 능력의 발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문자적 이해는 연령(2, 3세)과 이야기 구조(인과, 비인과, 비연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추론적 이해는 연령(2, 3세)과 이야기 구조(인과, 비인과, 비연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공감적 이해는 연령(2, 3세)과 이야기 구조(인과, 비인과, 비연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구조에 따른 유아의 이야기 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2세와 3세 유아 총 68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는 이야기에 흥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사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구성

구 분	서 울 경 기 도				전 체
	2세	3세	2세	3세	
남 아	11	13	5	4	34
여 아	10	11	8	6	34
전 체	45		23		68

건이나 이야기의 인과적 관계에 민감하며, 인과적 추론을 시작한다(Bauer & Mandler, 1989; Bauer & Shore, 1987; Bauer & Thal, 1990; Fivush & Hamond, 1989; Shultz & Mendelson, 1975)는 점을 고려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및 출신 지역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은 총 68명이었으며, 2세와 3세 유아는 각각 34명이었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아는 33명, 여아는 35명이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45명, 경기도 지역이 23명이었다.

2. 연구도구

1) 구조 유형별 이야기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구조에 따른 이야기 이해를 평가한 선행연구(유은혜, 2000; Mandler & Johnson, 1977; Stein & Glenn, 1979; Thorndyke, 1977; Trabasso & van den Broek, 1985)에서 사용된 짝짝이 이야기와 호랑이 이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의 목표와 시도, 해결로 구성되는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각 이야기는 이야기 범주(배경, 계기가 되는 사건, 시도, 결과 및 반응)의 연결방식과 인과적 응집 정도에 따라 인과, 비인과, 비연결 구조로 구성하였다.

첫째, 인과구조란 이야기 문법 범주인 배경,

사건, 시도, 결과 및 반응이 시간적,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응집성이 뛰어난 이야기 구조를 의미한다. 둘째, 비인과구조란 이야기 문법 범주들이 시간적 순서대로 제시되지만 내용면에서는 비인과적, 비논리적으로 구성된 이야기 구조를 의미한다. 셋째, 비연결 구조란 이야기 문법 범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순서가 바뀌어 내용들 간에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시간적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각 이야기는 내용과 일치되는 5장면으로 구성되었고, 가로 20cm, 세로 18cm 크기의 그림으로 제시되었다. 글자 수와 문장 수는 동일하게 조정하여 이야기 길이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구조에 따른 이야기의 내용은 아동학 전공 박사 5인이 전원 일치하여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2) 이야기 이해

이야기 이해 측정 도구는 관련 선행 연구들(최윤경·유안진, 1995; Hansen, 1981; Morrow, 1984; van Kraayenoord & Paris, 1996)의 질문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이야기 내용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일부는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문자적, 추론적, 공감적 이해에 관한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적 이해는 다시 사실과 줄거리 이해로 세분하였다. 추론적 이해는 평가 내용에 따라 감정추론, 내용추론, 경험과 연결로 세분하였다. 이야기 이해의 평가 범주와 내용은 아동학 전공 박사 5인이 전원 일치하여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야기 이해에 대한 언어적 평가 방법은 나이 어린 유아의 이야기 회상과 이해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Brown, 1975; Fivush & Mandler, 1985; Fivush 등, 1992; Price & Goodman, 1990; Smith 등, 1985)를 근거로, 각 문항에 대한 답안은 3장의 그림으로 구성하여

유아가 질문을 들은 후 답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이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는 0점으로 채점하였고, 줄거리 회상 점수는 3장의 순서가 모두 맞은 경우에 2점, 시작과 끝을 맞춘 경우에 1점을 주었고, 나머지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이야기 이해 점수의 전체 범위는 0-11점이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검사 도구의 적절성과 소요 시간을 점검하기 위해 2003년 9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만 2세와 3세 유아 각각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미리 녹음된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제시한 결과, 유아는 이야기보다는 녹음기의 작동에 관심을 보이고 그림을 보는데 집중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각 그림의 뒷면에 이야기 내용을 기록한 후 실험자가 그 내용을 읽도록 하였다. 이 때 유아와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그림을 눈높이로 들어 실험자의 얼굴을 가리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유아가 그림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술 담당자와 협의하여 그림 내용을 수정하였다. 3가지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2003년 9월 16일부터 29일 사이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1명이 어린이집의 시청각 실이나 수면실 등 독립된 장소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야기는 구조에 따른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인과, 비인과, 비연결구조의 이야기를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였다. 3개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준 후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이야기 이해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야기 이해 질문을 실시할 때는 질문 순서를 순서대로 또는 역순으로 번갈아 가며 제시하였다. 실험자는 각 문항에 제시된 질문을 한 후, 응답 문항의 그림들을 하나씩 언어적으로 설명하였다. 설명이 끝나면 아동에게 응답 문항 중

〈표 2〉 이야기 이해 측정 도구

종 류	하위 범주	질문의 예
문자적 이해	사 실	1. 이 이야기에는 누가 나오니? 2. 짹짹이는 배가 고파서 어디로 갔니? 3. 짹짹이는 부엌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했니?
	줄 거 리	4. 이 그림들을 들려준 순서대로 놓아보자
	감정추론	5. 짹짹이는 고양이가 하품을 했을 때 어떤 얼굴이었을까?
추론적 이해	내용추론	6. 짹짹이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7. 짹짹이는 왜 고양이네 집으로 갔을까 ?
	경험연결	8. 이 이야기를 듣고 뭐가 생각났니?
공감적 이해	감정공감	9. 지금 짹짹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준다면 무엇을 주고 싶니? 10. ○○가 짹짹이라면 지금 어떤 얼굴일까?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도록 요청하였다. 이해 측정 문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나면 이야기의 그림 중 1-3-5번의 그림을 바닥에 펼쳐놓은 후 실험자가 들려준 순서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요청하였다. 유아가 어려워할 경우에는 “○○에게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회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야기 순서 맞추기는 단순한 기억과 암기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각 이야기 내용에 대한 질문이 끝난 후에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반복 측정 변량 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 t 검증이 사용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1. 연령 및 이야기 구조에 따른 유아의 문자적 이해

유아의 연령과 이야기 구조 및 제시방법에 따라 전체 문자적 이해와 그 하위영역 점수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이야기 구조를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연령과 구조에 따른 주효과와 연령과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3세 유아의 문자적 이해 평균 점수가 2세 유아의 평균 점수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6.64$, $df=1, 66$, $p<.001$). 즉 3세 유아의 문자적 이해 점수가 2세 유아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자적 이해의 하위영역인 사실($F=25.18$, $df=1, 66$, $p<.001$)과

<표 3> 연령 및 이야기 구조에 따른 문자적 이해 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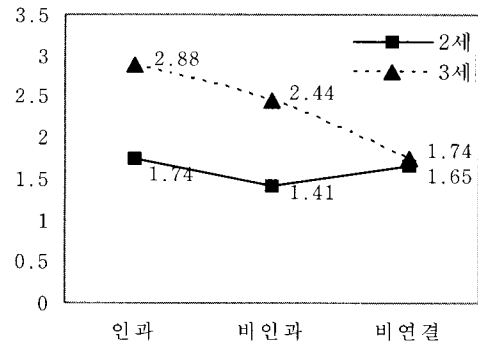
범주 구분	변 동 원	자 승 합	자 유 도	평균자승	F	
문자적 이해	피험자간	연 령	111.20	1	111.20	36.64***
		오 차	200.28	66	3.035	
	피험자내	구 조	16.86	2	8.43	8.37***
		구조×연령 오 차	2.84 132.97	2 132	1.42 1.01	1.41
사 실	피험자간	연 령	45.33	1	45.33	25.18***
		오 차	118.84	66	1.80	
	피험자내	구 조	2.36	2	1.18	2.06
		구조×연령 오 차	.62 75.69	2 132	.31 .57	.54
줄거리	피험자간	연 령	14.53	1	14.53	11.90***
		오 차	80.57	66	1.22	
	피험자내	구 조	6.61	2	3.30	6.71**
		구조×연령 오 차	5.72 65.00	2 132	2.86 .49	5.81**

* $p<.05$ ** $p<.01$ *** $p<.001$

줄거리 회상($F=11.90$, $df=1$, 66 , $p<.001$)에서도 3세 유아의 점수가 2세 유아의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3세 유아가 2세 유아보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배경, 사건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더 잘 회상함을 의미한다.

유아의 전체 문자적 이해 점수는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37$, $df=2$, 132 , $p<.001$). 즉 유아는 인과구조의 이야기를 비인과구조나 비연결구조의 이야기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야기가 문법적 구조에 맞지 않거나 비논리적으로 전개될 경우 나이 어린 유아도 이야기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사실과 내용 회상에 있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적 이해의 하위 영역인 줄거리 회상 점수에서도 구조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유아는 이야기가 인과구조일 때 비인과 및 비연결구조일 때보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더 잘 회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71$, $df=2$, 132 , $p<.01$).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목표를 중심으로 잘 응집되어 있는 경우, 시간적 관계나 비연결관계의 이야기보다 더 잘 회상함을 밝힌 선행연구결과(유은혜, 2000; 최윤경·유안진, 1995; Brennan, Bridge, Winograd, 1986; Mandler & Johnson, 1977; Stein & Glenn, 1979)와 일치한다. 이는 이 시기의 유아도 이야기의 시간적, 인과적 요소에 민감하며, 자신의 인지적 도식에 일치하는 구조의 이야기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회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줄거리 회상 점수에서 연령과 이야기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F=5.81$, $df=2$, 132 ,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1>). 따라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이용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줄거리 이해에서 연령과 이야기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

그 결과, 인과구조의 경우 2세 유아의 줄거리 회상 평균 점수는 1.74점, 3세 유아의 평균 점수는 2.88점으로 연령 간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3.88$, $df=66$, $p<.001$). 비인과구조의 경우도 2세 유아의 평균점수가 1.41점, 3세의 평균 점수가 2.44점으로 연령간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3.51$, $df=66$, $p<.001$). 반면 비연결구조의 경우에는 2세 유아의 평균 점수가 1.65점, 3세 유아의 평균 점수가 1.74점으로 줄거리 이해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3세 유아는 논리적, 시간적으로 연결된 인과구조와 내용은 인과적이 않지만 시간적 순서가 존재하는 비인과구조의 이야기를 2세 유아보다 더 잘 회상하였다. 그러나 이야기의 범주 순서가 바뀐 비연결구조에서는 3세 유아도 2세 유아와 마찬가지로 줄거리를 순서대로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2세 유아보다 3세 유아가 이야기의 시간적 순서와 구조적 특성에 더 민감함을 보여준다. 특히 3세 유아는 비연결구조보다 비인과구조의 줄거리를 더 잘 회상했다는 결과는 이야기에 대한 회상이 사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야기 범주의 시간적 연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연령과 이야기 구조에 따른 유아의 추론적 이해

유아의 연령과 이야기 구조에 따라 유아의 추론적 이해와 하위영역의 점수가 차이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이야기 구조를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연령과 구조에 따른 주효과와 연령 및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3세 유아의 추론적 이해 평균 점수가 2세 유아의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F=14.15, df=1, 66, p<.001$). 이는 3세 유아가 2세 유아보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감정과 내용을 보다 잘 추론

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함을 의미한다.

추론적 이해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내용 추론에서만 나타났다. 즉 3세 유아의 내용 추론 평균 점수가 2세 유아의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F=13.63, df=1, 66, p<.001$). 이는 3세 유아가 2세 유아보다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인과관계를 보다 잘 파악하고 이러한 인과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더 잘 추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론적 이해의 하위 영역인 감정 추론과 경험 연결짓기 점수는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3세 유아의 점수가 2세 유아만큼 낮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유아의 추론적 이해 점수는 이야기 구

<표 4> 연령 및 이야기 구조에 따른 추론적 이해 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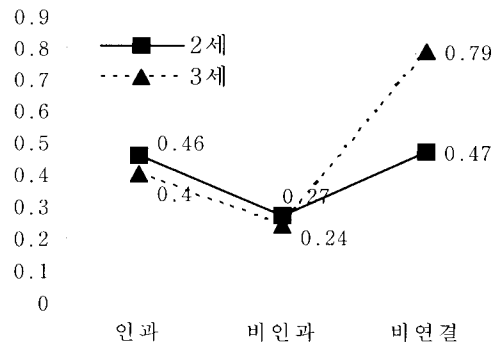
범주 구분	변 동 원	자 승 합	자 유 도	평균자승	F	
추론적 이해	피험자간	연령	20.75	1	20.75	14.15***
		오차	96.78	66	1.47	
	피험자내	구조	57.09	2	28.55	29.01***
		구조×연령	4.01	2	2.00	2.04
감정	피험자간	연령	.63	1	.63	2.69
		오차	15.38	66	.23	
	피험자내	구조	9.96	2	4.98	18.63***
		구조×연령	3.08	2	1.54	
	오차		35.29	132	.27	
내용	피험자간	연령	9.42	1	9.42	13.63***
		오차	45.62	66	.69	
	피험자내	구조	27.21	2	13.61	36.00***
		구조×연령	.24	2	.12	.32
오차		49.89	132	.38		
경험과 연결	피험자간	연령	.48	1	.48	1.75
		오차	18.11	66	.27	
	피험자내	구조	.86	2	.43	1.39
		구조×연령	.18	2	.00	
	오차		40.63	132	.31	

* $p<.05$ ** $p<.01$ *** $p<.001$

조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9.01$, $df=2, 132$, $p<.001$). 즉 유아들은 비연결구조, 인과구조, 비인과구조의 순서로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였다. 그러나 비연결구조의 이야기를 인과구조의 이야기보다 더 잘 이해했다는 결과는 위계구조의 이야기를 비연결구조의 이야기보다 더 잘 회상하고 이해한다는 선행연구결과(유은혜, 2000; 최윤경·유안진, 1995)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는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위의 선행연구들은 초등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여러 개의 일화가 포함된 복잡한 이야기를 사용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나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하나의 일화로 구성된 단순한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야기 범주의 순서가 바뀐 비연결구조라고 하더라도 인과적 관계를 추론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해석해 볼 수 있다.

추론적 이해의 하위 영역인 감정 추론과 내용 추론에서도 구조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감정추론 점수는 비연결구조, 인과구조, 비인과구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구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8.63$, $df=2, 132$, $p<.001$). 이는 유아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감정과 정서를 추론할 때, 이야기의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연결구조의 이야기에서 감정 추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유아들이 이야기 구조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비연결구조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보다 슬픔의 정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용 추론에서는 이야기 구조가 인과적이거나 비연결구조인 경우, 비인과구조인 경우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36.00$, $df=2, 132$,



(그림 2) 감정추론에서 연령과 이야기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

$p<.001$). 이러한 결과는 나이 어린 유아도 이야기가 인과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될 때 사건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파악하고,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추론적 이해의 하위 영역인 감정 추론 점수에서는 연령과 구조의 상호작용 효과($F=5.76$, $df=2, 132$,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2). 따라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이용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과구조의 경우 2세 유아의 평균 점수가 .46점, 3세 유아의 평균 점수가 .40점으로 연령간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비인과구조의 경우도 2세 유아의 평균 점수가 .27점, 3세 유아의 평균 점수가 .24점으로 연령간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비연결구조의 경우 2세 유아의 평균 점수가 .47점, 3세 유아의 평균 점수가 .79점으로 감정 추론 점수에서 연령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3.95$, $df=66$, $p<.001$). 즉 인과구조와 비인과구조의 이야기에서는 2세와 3세 유아가 모두 등장인물의 감정을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보인 반면, 비연결구조의 이야기에서는 2세 유아와는 달리 3세 유아는 주인공의 감정을 더 잘 해석하고 추론하였다. 그

〈표 5〉 연령 및 이야기 구조에 따른 공감적 이해 변량분석

범주 구분	변 동 원	자 승 합	자 유 도	평균자승	F	
공감적 이해	피험자간	연 령	1.66	1	1.66	2.51
		오 차	43.49	66	.66	
	피험자내	구 조	11.55	2	5.78	12.98***
구조×연령		2.37	2	1.19	2.67	
	오 차	58.75	132	.45		

* $p < .05$ ** $p < .01$ *** $p < .001$

러나 인과구조보다 비연결구조에서 감정추론을 가장 잘 했다는 결과는 3세 유아가 이야기 내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연령과 이야기 구조에 따른 유아의 공감적 이해

유아의 연령과 이야기 구조에 따라 공감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이야기 구조를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공감적 이해에서 구조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감적 이해에서 이야기 구조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유아는 인과구조의 이야기를 비인과 및 비연결구조의 이야기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98$, $df=2, 132$, $p<.001$). 이는 이야기가 구조적이고 인과적일때 등장인물의 감정과 느낌을 더 잘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만 2, 3세 유아 68명을 대상으로 이야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이야기 구조에 따라 이야기 이해(문자적, 추론적, 공감

적 이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과구조, 비인과구조, 비연결구조의 이야기를 제시한 후, 각 영역별 이야기 이해 능력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유아의 문자적 이해는 연령과 이야기 구조에 따라 다르다. 즉 3세 유아는 2세 유아에 비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배경, 사건의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더 잘 회상하였다. 또한 유아의 문자적 이해 점수는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즉 유아는 인과구조의 이야기를 비인과구조나 비연결구조의 이야기보다 더 잘 이해하였다. 이는 이야기가 문법적 구조에 맞지 않거나 비논리적으로 전개될 경우 나이 어린 유아도 이야기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사실과 내용 회상에 방해를 받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자적 이해의 하위 영역인 줄거리 회상은 이야기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유아는 이야기가 인과 구조일 때 비인과 및 비연결구조일 때보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순서대로 더 잘 회상하였다. 이는 이 시기의 유아도 이야기에 대한 인지적 도식이 형성되어 있고, 이야기의 인과적 요소에 민감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조에 따른 줄거리 회상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논리적, 시간적으로 연결된 인과구조와, 내

용은 인과적이지 않지만 시간적 순서가 존재하는 비인과구조에서는 3세 유아보다 2세 유아보다 줄거리를 더 잘 회상한 반면, 이야기 범주의 순서가 바뀐 비연결구조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야기의 시간적 순서와 인과관계에 더 민감하다(Nezworski 등, 1982)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즉 3세 유아는 인과구조에서는 시간적, 인과적 관계를 단서로, 비인과구조에서는 이야기 범주와 시간적 순서를 단서로 줄거리 회상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과적, 시간적 단서 사용이 불가능한 비연결구조에서는 3세 유아도 2세 유아와 마찬가지로 회상에 어려움을 보였다. 이는 연령에 따른 이야기 회상의 차이가 단순히 기억용량의 차이라기보다는 이야기 이해과정에서의 전략 및 단서 활용의 차이(Paris & Upton, 1976)임을 보여준다.

둘째, 유아의 추론적 이해는 연령과 이야기 구조에 따라 다르다. 3세 유아는 2세 유아에 비해 이야기의 내용을 보다 잘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더 잘 추론하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경 지식이 증가하며(Hansen, 1981),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여 이야기의 의미를 생산해내는 추론과 전략이 증가(Beagles-Roos & Gat, 1983; Lee, 1983; Paris & Upton, 1976; Stein & Glenn, 1979; van den Broek 등, 1996)하기 때문이다. 특히 3세 유아는 2세 유아보다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인과관계를 보다 잘 파악하고 이러한 인과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음에 일어날 내용을 더 잘 추론하였다. 그러나 인물의 감정을 추론하고 이야기 내용을 경험과 연결짓는 추론에서는 3세 유아도 2세 유아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배경이나 줄거리와 같은 문자적 이해보다 주인공의 감정이나 동기, 목표 등을 유추해내는 추론적 이해

가 더 고차적 인지 능력을 요구함(Hansen & Pearson, 1983)을 보여준다. 또한 만 3세 유아도 얼굴 표정에 나타난 서로 다른 정서를 구별할 수 있고(Russell & Bullock, 1986), 정서의 원인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나(Stein & Levine, 1989; Trabasso, Stein, & Johnson, 1981), 만 4세 정도가 되어야 다양한 정서 관련 용어를 구별하고 서로 다른 정서 상태에 대한 지식을 표현할 수 있음(Stein & Levine, 1989)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는 비연결구조, 인과구조, 비인과구조의 순서로 이야기를 더 잘 추론하였다. 특히 인물의 감정을 추론하고, 내용을 추론하는 경우에 이야기 구조의 영향을 받았다. 즉 유아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는 비인과적 이야기보다는 사건이 인과적, 논리적으로 구성된 인과구조와 인과적 추론이 가능한 비연결구조의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의 감정과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더 잘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야기 구조에 따른 감정 추론은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인과 및 비인과구조에서는 2세와 3세 유아 모두 등장인물의 감정을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보인 반면, 이야기의 순서가 변형되어 인과적 추론이 요구되는 비연결구조에서는 3세 유아보다 2세 유아와 달리 주인공의 감정을 더 잘 해석하고 추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야기 추론에 있어서 인과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 발달함을 보여준다. 한편 비연결구조의 이야기에서의 감정추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연구도구로 사용된 비연결구조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보다 슬픈 정서가 더 뚜렷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불일치는 이야기 복잡성의 수준과 관련해 해석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유은혜, 2000; 최윤경·유안진, 1995; Mandler & Johnson, 1977; Stein &

Glenn, 1979)에서는 초등학교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여러 개의 일화가 포함된 복잡한 이야기를 사용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일화로 구성된 단순한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야기 범주의 순서가 바뀐 비연결구조라고 할지라도 유아가 인과적 관계를 추론하여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유아가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하는 정도가 다르다. 즉 유아는 비인과 및 비연결구조의 이야기보다는 인과구조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야기가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등장인물을 공감하도록 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Bourg, Risdien, Thompson, & Davis, 1993)를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유아가 등장인물의 감정과 정서를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야기의 구조가 인과적으로 응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Bourg, 1996)을 보여준다. 공감적 이해 능력은 이야기 이해의 고차적 과정으로, 특히 문학적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수적이다(Miall, 1989). 따라서 유아의 공감적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야기 내용이 인과관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적인 이야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을 배제한 채 그림도구를 사용해 유아의 이야기 이해를 측정하였으므로, 유아의 언어발달수준에 따라 이야기 이해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야기 구조에 따라 이야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의 이야기 이해는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적 반응을 그림 도구와 병행하여 유아의 이야

기 이해를 다양하게 측정할 뿐 아니라 이야기 내용을 통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언어적 표현이 부족한 만 2,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이해를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인 이야기 이해 발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둘째, 나이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그림도구의 평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이해를 문자적, 추론적, 공감적 이해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야기 이해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야기 이해를 구성하는 영역들이 상이한 인지 능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넷째, 이야기 구조에 따라 유아의 이야기 이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만 2, 3세 유아도 이야기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이야기 도식의 형성과 이야기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화 구성 및 제작자들에게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 어린 유아에게 이야기를 제공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유은혜(2000). 이야기 구조유형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와 회상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자(1988). 이야기 구조에 따른 이해 추론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경·유안진(1995). 이야기의 구조와 문체가 아동의 이해와 회상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20, 35-48.

- Bauer, P. J., & Mandler, J. M.(1989). One thing follows another : Effects of temporal structure on 1-to 2-year olds' recall of ev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197-206.
- _____, & Shore, C.(1987). Making a memorable event : Effects of familiarity and organization on young children's recall of action sequences. *Cognitive Development*, 2, 327-338.
- _____, & Thal, D. J.(1990). Scripts or scraps : Re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sequential understand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0, 287-304.
- Beagles-Roos, J., & Gat, I.(1983). Specific impact of radio and television on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1), 128-137.
- Bourg, T.(1996). The role of emotion, empathy, and text structure in children's and adult's narratives text comprehension. In R. J. Kreuz & M. S. MacNealy(eds.), *Empir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and aesthetics*(pp.241-260). Norwood, NJ :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_____, Ridsen, K., Thompson, S., & Davis, E. C.(1993). The effects of an empathy-building strategy on 6th grader's causal inferencing in narrative text comprehension. *Poetics*, 22(1-2), 117-133.
- Brennan, A. D., Bridge, C. A., & Winograd, P. N. (1986). The effects of structural variation on children's recall of basal reader stori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1, 91-104.
- Brown, A.(1975). Recognition, reconstruction, and recall of narrative sequences of preoperation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156-166.
- Davey, B., & McBride, S.(1986). Effects of question-generation training on reading comprehens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4), 256-262.
- Fivush, R., & Hamond, N. R.(1989). Time and Again : Effects of repetition and retention interval on 2 year old's event recall.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47, 259-273.
- _____, & Mandler, J. M.(1985).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understanding of temporal sequence. *Child Development*, 56, 1437-1446.
- _____, Kuebli, J., & Clubb, P. A.(1992). The structure of events and event representations : A development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63, 188-201.
- _____, Haden, C. A., & Adam, S.(1995). Structure and coherence of preschoolers' personal narratives over time : Implication for childhood amnesia.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 32-50.
- Goldman, S. R., & Varnhagen, C. K.(1986). Memory for embedded and sequential story structure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5, 401-418.
- Hansen, J.(1981). The effects of inference training and practice on young children's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Research Quarterly*, 16(3), 391-417.
- _____, & Pearson, P. D.(1983). An instructional study : Improving the inferential comprehension of fourth grade good and poor read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6), 821-829.
- Hudson, J. A., & Nelson, K.(1983). Effects of script structure on children's story recall. *Developmental Psychology*, 19(4), 625 -635.
- Johnson, N. S., & Mandler, J. M.(1980). A tale of two structures : Underlying and surface forms in stories. *Poetics*, 9, 51-86.
- Kemper, S., & Edwards, L.(1986). Children's expression of causality and their construction of narratives.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7(1), 11-20.
- Lee, Y. J.(1983). The influences of the presentation mode on preschool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and recall. Doctoral dissertation of Boston university.

- Mandler, J. M., & Johnson, N. S.(1977). Remembrance of things parsed : Story structure and recall. *Cognitive Psychology*, 9, 111-151.
- Miall, D. S.(1989). Beyond the schema given : Affective comprehension of literary narratives. *Cognition and Emotion*, 3, 55-78.
- Morrow, L. M.(1984). Reading stories to young children : Effects of story structure and traditional questioning strategies on comprehension. *Journal of Reading Behavior*, 16(4), 273-288.
- _____.(1985). Retelling stories : A strategy for improving children's comprehension, concept of story structure and oral language complexity. *Elementary School Journal*, 85, 647-661.
- _____.(1990). Assessi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ory through their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narrative. In L. M. Morrow & J. K. Smith(eds.), *Assessment for instruction in early literacy*(pp.110-132). Prentice-Hall Inc.
- Networkski, T., Stein, N. L., & Trabasso, T.(1982). Story structure versus content in children's recall.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1, 196-201.
- Paris, S. G., & Upton, L. R.(1976). Children's memory for inferential relationships in prose. *Child Development*, 47, 660-668.
- Price, D. W. W., & Goodman, G. S.(1990). Visiting the wizard : Children's memory for a recurring event. *Child Development*, 61, 664-680.
- Russell, J. A., & Bullock, M.(1986). On the dimensions preschoolers use to interpret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97-102.
- Shultz, T. R., & Mendelson, R.(1975). The use of covariation as a principle of caus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46, 394-399.
- Stein, N. L.(1979). How children understand stories : A developmental analysis. In L. Katz(ed.),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v.2(pp. 261-290). Norwood, NJ : Ablex Publishing Co.
- _____, & Glenn, C. G.(1979). An analysis of story comprehen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R. O. Freedle(ed.),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pp.53-120). Norwood, NJ : Ablex Publishing Co.
- _____, & Levine, L. J.(1989). The causal organization of emotional knowledge : A developmental study. *Cognition and Emotion*, 3, 343-378.
- _____, & Trabasso, T.(1982). What's in story : An approach to comprehension and instruction. In R. Glaser(ed.), *Advances in instructional psychology*, Vol. 2(pp. 212-267). Hillsdale, N. J. : Erlbaum.
- Stevens, B., & Yussen, S. R.(1988). What's wrong? Children's detection of subtle order violations in narrativ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9(3), 277-291.
- Suh, S., & Trabasso, T.(1993). Inference during reading : Converging evidence from discourse analysis, talk-aloud protocols and recognition primi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2(3), 279-300.
- Thorndike, P. W.(1977). Cognitive structures in comprehension and memory of narrative discourse. *Cognitive Psychology*, 9, 77-110.
- Trabasso, T., & van den Broek, P.(1985). Causal thinking and the representation of narrative event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4, 612-630.
- _____, Secco, T., & van den Broek, P.(1984). Causal cohesion and story coherence. In H. Mandler, N. Stein, & T. Trabasso (eds.), *Learning and comprehension of text*(pp. 83-111).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
- _____, Stein, N. L., & Johnson, L. R.(1981). Children's knowledge of events : A causal analysis of story structure. In G. Bower (ed.), *Learning and motivation*, Vol. 15.(pp. 237-281). New York : Academic Press.
- Van den Broek, P., Lorch, E. P., & Thurlow, R.(1996).

Children's and adults' memory for television stories : The role of causal factors, story-grammar categories, and hierarchical level. *Child Development*, 67, 3010-3028.

Van Kraayenoord, C. E., & Paris, S. G.(1996). Story construction from a picture book : An assessment

activity for young learn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41-61.

Wenner, J. A.(1999). Planning for goals : Preschooler's comprehension of goal structure in narratives. Doctoral dissertation of minnesota university.

2004년 8월 31일 투고 : 2004년 10월 29일 채택